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비우기 버리기 나누기

'징하다'는 말이 있다. '징그럽다'의 전라도 방언이다. 징그럽게, 독하게 마음을 다잡아 간절심으로 정진(精進)해야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어제 대구에서 찾아온 거사들에게 들려준 내용을 간추려 옮겨본다. 불자(佛子)들은 일상생활에서 비우기, 버리기, 나누기를 실천 덕목으로 삼아 생활화해야 한다.

비우기는 마음속의 흔들림, 헐떡임을 줄이며 비워내는 수행법이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실천하는 노력이다. 천 가지 만 가지로 흩어지는 마음을 추슬러 단순화하며 지나친 욕심을 하나 둘씩 내려놓으며 마음을 비워가는 것이다. 쉽지는 않겠지만 마음 비우고 내려놓기가 반복되면 어느새 개운한 느낌, 잔잔한 기쁨을 느낄 터이다.

미운 감정도, 화냄도 길들이며 우선은 내려놓기, 지우기, 비우기를 거듭하다보면 온갖 유혹에서 자유로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거친 말과 행동에서 한 박자 늦추고 두어 걸음 물러나 생각을 비우면 어둠이 빛이 되는 것이다. 후회할 일이 줄어들고 망신당할 일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부부사이의 전쟁이 평화로 바뀌고 가족 간의 대립이 기대와 신뢰로 변해가는 것이다. 친구와 이웃 사이에도 믿음이 둘레를 넓혀 사람 좋은 모범 케이스가 되는 것이다.

마음 비우는 것, 집착을 덜어내는 것, 감정을 길들이는 것, 한 박자, 한 템포 늦춰 입장 바꾸어 상대를 배려하면 나도 웃고 상대도 웃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과 노력은 처세학적 수준에 머물게 되면 일시적 일탈행위로 윤회를 거듭하게 될 터이다. 마음 비우기에도 간절함이 기본이 되어야 그 생명력이 평화와 행복, 자유를 누리게 됨을 잊지 말 일이다.

안으로는 마음 비우는 정진과 함께 밖으로는 버리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사람이 앓는 병은 소유욕과 집착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99마리의 양을 기르고 있으면서 100마리를 채우기 위해 이웃집의 양을 욕심내는 어리석음을 사람들은 즐기고 있다. 천만 원이 모이면 고맙겠다는 사람에게 천만 원이 생기면 욕심을 키워 이천만원, 삼천만원으로 치닫는 게 사람의 욕구심리이다.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은 재산보다 명예보다 자신의 건강이다. 돈을 벌기 위해, 명예를 높이기 위해 쉴 때 쉬지 못하고 잠잘 때 잠들지 못하며 먹을 때 끼니마저 건너뛰며 세상 사람들은 전쟁하듯 살고 있다. 그리하여 돈도 벌고 명예욕도 어느 정도 성취했고 살 만큼 되었다고 힘을 느낀 순간, 육체는 이곳 저곳에 병이 깊어 후회로 남는 신음 소리가 길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강은 건강할 때 살펴야 건강만점을 누릴 수 있다. 과로는 만 가지 병의 원인이 된다. 작은 것으로 만족해하며 지나친 일 욕심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병자(病者)로 살지 말 일이다.

가능하면 밖으로 치닫는 생각을 줄이고 쓰잘 데 없는 반연(攀緣)을 덜어내며 분주하지 않게 느긋하고 평화롭게 빨려듦과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도 균형과 조화를 이루며 살 일이다. 욕심은 버릴수록 아름답고 집착은 키울수록 병이 되기 때문이다.

유형 · 무형의 그 무엇을 버리는 생활 습관은 평화와 행복, 자유를 누리는 지름길이다. 인연도 버리고 욕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기 시작하면 어둠이 빛이 됨을 느낄 터이다. 단순화하는 순수한 마음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는 것이다.

다음으로 나누기의 수행법이다. 사람은 누구나 필요 이상의 욕심을 마음에 담고 있으면서 마음이 무겁다고 투덜댄다. 필요 이상의 물건을 갖고 있으면서 나눌 줄 모르고 챙기고 모으며 쌓아두려는 못된 병을 앓고 있다. 우선은 책상 정리하며 옷장 정리하며 나눌 물건을 챙겨보자. 수두룩함을 느낄 터이다. 물건 나눔만 나눔이 아니다. 부드러운 미소와 위로의 따뜻한 말 한 마디도 나눔이다. 칭찬하는 애어보시(愛語布施)도 생활화하자.

하여, 수행승들의 설법은 법보시(法布施)에 해당된다. 당연한 일인데도 설법이 끝난 뒤 주최 측에서 내미는 현찰이 든 봉투를 챙겨가는 뒷모습이 여간 걱정스럽다. 아무튼 비우기, 버리기, 나누기를 생활화해야 불자다운 불자이다. 그러나 징하게 겁나게 마음을 모아 간절함으로 정진하면 누구나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아무나 행복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

'징하게' 마음을 모아 정진한다면
누구나 행복 ·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방망이 질로 사람을 제접하다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금강경〉 경문에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過去心不可得 現在心不可得 未來心不可得)"는 말이 나온다. 마음은 시간에 의해 포착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 말과 관계된 설화가 전해진다.

덕산선감(德山宣鑑: 782~865)선사는 방(棒)으로 유명한 스님이다. 법을 물으러 오는 사람을 방망이를 휘둘러 곧잘 때렸다. 임제선사가 할(喝)을 하여 사람을 깨우쳤듯이 덕산은 방망이질을 하여 사람을 제접(提接) 했다는 것이다. 선가의 특이한 가풍(家風)이었다.

덕산은 어려서 출가하여 율장을 깊이 공부하고 또 〈금강경〉에 정통하여 강설을 잘 하였다. 속성이 주씨(周氏)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주금강(周金剛)이라 불렀다. 그가 지은 〈금강경소〉를 〈청룡소〉라 불렀다.

어느 날 덕산이 자기가 지은 〈청룡소〉를 걸망에 넣어 어깨에 메고 길을 가고 있었다. 도중에 시장기를 느낀 그는 마침 길가에 떡을 파는 노파를 만났다.

"요기하게 떡 좀 주시오."

노파에게 말했더니 노파가 얼른 떡을 주지 않고 "스님 걸망에 무엇이 들었습니까?"하고 묻는 것이었다.

"불경 가운데 〈금강경〉이라는 경이 들어 있소." 이렇게 말하자 "〈금강경〉에 과거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찾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찾을 수 없다 했는데 스님은 어느 마음에 요기를 할 것입니까?"하는 것이었다.

요기하는 것을 중국에서는 점심(點心)이라 한다. 훈을 따라 해석하면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뜻이다.

이 말에 주금강이 그만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했다. 천하에 〈금강경〉에 대해서는 자신이 제일인양 뽐내왔던 주금강 덕산이 말을 못하자 노파가 혀를 차면서 용담숭신(龍潭崇信)선사를 소개하며 찾아가 볼 것을 권했다. 그리하여 덕산은 용담을 찾아갔다.

덕산은 용담이 있는 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호탕한 객기를 부렸다. "용담이라고 하더니 용도 없고 못도 업구나." 그러자 한쪽에서 스님이 나오며 "그대가 용담에 참으로 잘 왔네"하는 것이었다.

덕산은 용담의 방에서 밤이 깊도록 법담을 나눴다. 이야기를 마치고 용담의 방에서 나와 객실에 가 자려고 하였다. 막 방문을 나왔을 때 칠흑 같은 어둠 때문에 신발을 찾아 신을 수가 없었다. 덕산은 용담에게 신발을 찾게 불붙이는 종이에 불을 붙여 주기를 청했다. 용담이 불을 붙여 덕산에게 건네주려다 덕산이 받으려는 순간 훅 불어 불을 꺼버렸다. 그 순간 덕산이 활연대오(豁然大悟)하였다. 이튿날 덕산은 자기가 지은 〈청룡소〉를 법당 앞에서 불을 붙여 태워버렸다. 덕산의 오도기연(悟道機緣)에 대해 전해지는 이야기다.

〈선문염송설화〉 672칙에는 "덕산이 스님들이 방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주장자로 바로 때렸다"는 이 말을 두고 여러 스님들이 읊은 송(頌)이 달려 나온다. 그 중에 대홍보은(大洪報恩)은 "한 방에 한 줄기 흔적이 남으니 그 매운 맛을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구나. 대장부라면 기개가 넘칠 것이지만 몇 사람이나 그 은혜를 알까? 애달프다"라고 하였다.

주장자로 사람을 때린 것이 은혜를 베푼 것이다. 주장자로 때리는 것도 화두와 다르지 않다. 사유분별과 언어문자의 개념으로 모색하려는 길을 차단하는 방편이라 할 수 있다.

덕산이 만년에 병이 들었다. 노쇠해져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았을 때 어느 스님이 찾아와 물었다. "병들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있다." "병들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때 덕산이 "아야, 아야" 아파 신음하는 소리를 냈다. 〈염송설화〉 677칙에 나오는 이야기다.

〈설화〉에는 '아야, 아야'라 한 것은 병든 자임을 나타내는 소리다. 병든 자 외에 따로 병든 자가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대각회련(大覺懷璉)이 읊는다. "백태 낀 눈으로 보니 허공에서 꽃이 피는구나. 밝고 맑아지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을 것인가. '아야' 하는 벼락같은 소리의 뜻을 아는가? 깨어나고 보면 원래 병든 몸은 없노라." 이 이야기가 나중에 덕산의 '아야'(德山)라는 공안으로 제시되었다.

중생은 업에 무너지는 존재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시즌2
⑫ 무엇에 탄식하는가

愛悲品第二十

若人不知身心常爲極苦所縛。則不能知他心中苦。無悲者無惡不作。若見他衰禍心不調軟。此人名爲極惡行者。若有重恩者何時能念。臨死之人雖有美藥以爲極苦。爲極行惡。無福德者得慈悲甘藥作極苦想。若人巨富多饒財寶。但自食취不與他人爲人所呵。雖有智慧多聞若無悲心。亦爲人之所譏呵。若見苦惱眾生難得悲心者非功德器。猶如破器不任盛水。有悲心者見苦眾生雖不能救濟。可不能歎言苦哉眾生。見眾生爲貪欲瞋에愚癡所病。生老病死之苦常爲眾苦之所惱逼。怪哉眾生墮是大苦。世間眾生身苦心苦。常爲結業之所破壞。嗚呼怪哉。世間眾生逼迫之苦。何有菩薩而不生悲。身住於衆流沒生死無窮可畏大苦海。

번역 | 애비품 제20

만약, 사람의 심신(心身)이 극심한 괴로움에 얽힌 줄 모르고 남의 마음에 괴로움도 능히 알지 못하면 자비심 없는 자이며, 악을 짓지 않음이 없습니다. 만약 남의 어려움을 보고 마음을 부드럽게 쓰지 못하면 이 사람을 극악한 사람이라 합니다. 만약 거듭 은혜로운 이라면 언제나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종에 있는 사람이 비록 좋은 약이 있어 극심한 고통을 벗어나려 해도 악행이 극심하면 복덕이 없는 이며, 자비의 감로 약을 얻어도 극심한 고통으로 생각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부에다 재물이 넉넉해도 자기만 먹고 타인에게 주지 않는다면 사람들의 비난하는 바가 되듯이, 비록 지혜 있고 아는 게 많아도 만약 자비심이 없다면 역시 사람들의 지탄을 받습니다. 만약 고뇌하는 중생을 보고 자비심을 갖지 못한다면 공덕의 그릇이 되지 못하나니, 마치 깨진 그릇에 물을 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심 있는 이라면 괴로운 중생을 보고 비록 구제할 수 없어도 중생에 대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중생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병에 걸렸음을 보고 생로병사의 고통과 늘 괴로움에 얽혔음을 보면 "괴이하다. 중생은 큰 고통이 따르는구나. 세상의 중생은 몸과 마음의 고통에 항상 묶이고 업으로 무너지는 구나. 오호, 괴이하다"합니다. 세상의 중생이 핍박 받는 고통에 어찌 보살이 자비심을 내지 않겠는지요. 몸은 생사에 달려가고 휩쓸리는 데 머무니 한없이 두려운 큰 고해(苦海)입니다.

해설 | 같은 하늘, 다른 모습이 우리네 살이다. 때론 소나기처럼 같은 장소에서 소잔등이 갈리듯 젖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사람도 같은 사람이지만 얼굴모양과 피부색이 다르듯 그 업식(業識)에 따라 생각하는 방법이 다르고 생각하는 모양도 다르다. 문화는 나라와 인종과 생활환경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 천차만별의 국토마다 천차만별의 부처가 출현하였으며, 또 그 국토의 차이에 따라 중생이 살았다.

이러한 차이와 차별의 세계에서 불이(不二)는 무엇일까? 어떤 이에게는 차별 없음을 강요하는 것이 부처님이나 보살이 말하는 자비라는 이름의 정신적 폭력은 아니던가?

"네 배부른 것만 생각하지 말고 배고픈 이를 생각하라"고 강요하는 건,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아끼며 모았던 재물을 한 순간 헛것으로 치부하는 가진 자에 대한 폭력이 될 수 있다. "괴로운 중생을 보고 같이 괴로워하는 마음을 가지라." 고 말하는 건, 어쩌면 살아남기 위해 남을 죽여야만 하는 전쟁터에서 돌아온 이에게는 더할 수 없는 폭력이 된다.

이쯤 되면 이제 선과 악은 가름할 길 없는 수렁이다. 이제 인생은 완벽한 고해(苦海)다. 사람은 진흙소가 되어 쉴 수 없는 세상에 던져져 쟁기질을 해야만 한다.

'오호, 괴이하다(嗚呼怪哉).' 세상의 중생은 고통에 묶이고 업에 무너지는 존재다.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 명)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10월 중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